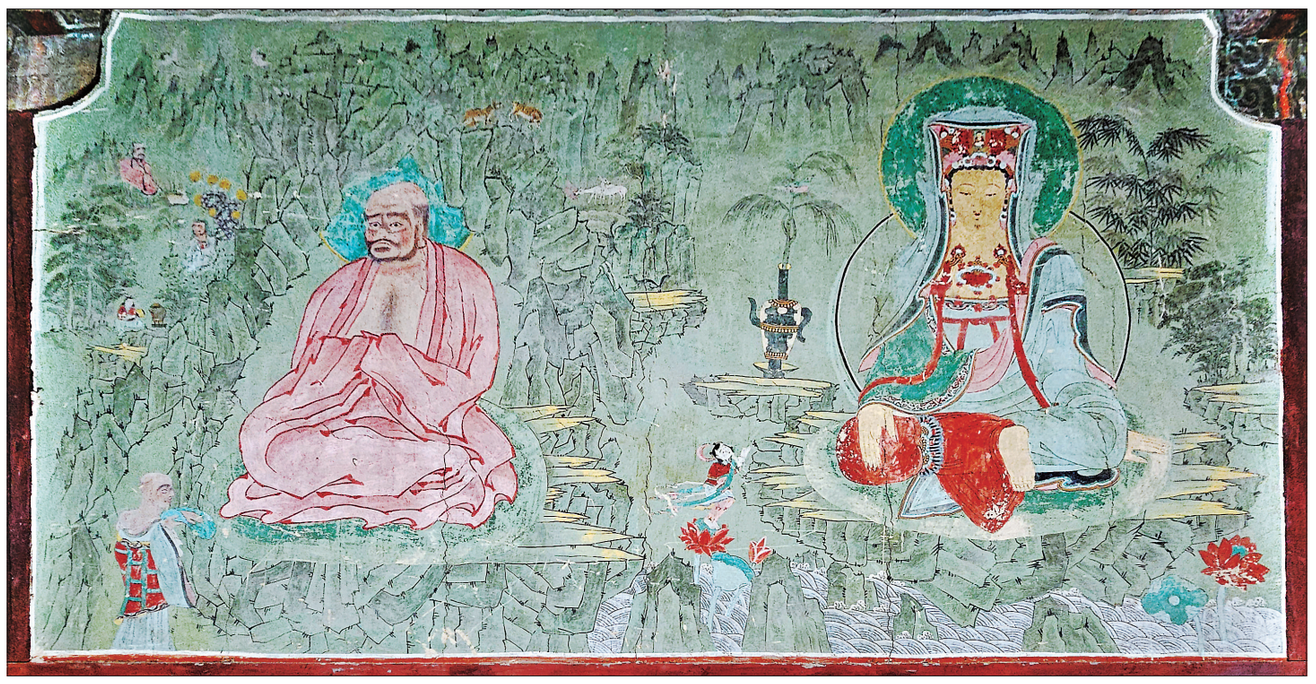
# 관음보살은 대승의 자비로, 달마는 직지로 일깨우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⑥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세음보살 및 달마대사벽화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세음보살 및 달마대사벽화.

**산수 표현 등 도갑사 관음32응신도와 유사**
**대원사 등에선 관세음, 달마벽화 독립 조성**
**수월관음은 바닷물, 보름달, 관세음의 조합**
**달마벽화에 중국 선종 이심전심 법맥 표현**

### 전국 11곳의 수월관음벽화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의 상징과도 같다. 세간의 소리를 두루 살피며 중생의 요구에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신다. 중생 요구에 부응해서 현실에 나툰 다양한 신분의 몸을 '응신(應身)' 또는 '변화신(變化身)'이라 부른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이나 〈능엄경〉 등에서는 32응신, 또는 33응신으로 나타난다.

그 경전 가르침을 표현한 대표적인 불화가 1550년 도화서 화원 이자실이 그린 영암 도갑사의 '관세음보살 32응신도'다. 일본 교토 지은원이 소장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32응신도 불화는 도갑사가 자리한 신령한 영산 월출산의 산수를 배경으로 구성했다. 변화신으로 나투신 공간 무대를 소나무와 구름 등으로 둘러싸인 바위산의 계곡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신분, 성별, 계층을 초월해 여러 모습의 변화신으로 나투신다. 장면마다 호랑이와 용, 거북, 물고기, 뱀 등의 이색적인 소재와 함께 진채와 수묵담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어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 불화만큼이나 독특한 관세음보살도가 청도 운문사에 벽화로 현존한다. 운문사 대웅보전 후불벽 뒷면에 그려져 있는 '관세음보살 및 달마대사벽화'다. 산수 표현과 구성에 있어 도갑사의 32응신도와 유사하다. 한국의 관세음보살을 소재로 한 벽화 절대다수는 선재동자가 바닷가 보름달빛 아래에서 관음보살께 법을 구하고 있는 장면, 곧 수월관음벽화다. 한국 산사에는 대형 수월관음벽화가 10여 점 현존한다. 특이하게도 수월관음벽화 대부분이 좁고 어두운 법당 후불벽 뒷면에 조성돼 있다.

후불벽 뒷면에 그려져 있는 수월관음벽화는 강진 무위사, 여수 흥국사, 부안 내소사, 공주 마곡사, 창녕 관룡사, 청도 운문사 등 전국에 걸쳐 11곳에 분포한다. 이들 수월관음벽화는 소재나 모티프, 심지어 봉안 장소까지 동일한 양식을 보여 준다. 벽화의 모티프는 〈80권 화엄경〉의 제39품 '입법계품'에 있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권유로 법을 구하기 위해 53선지식을 찾아 순례 길에 오른다. 28번째로 찾아간 곳이 관세음보살이 계신 바닷가의 보타낙가산이다. 선재동자가 찾아간 날은 마침 보름날이었다. 바위에 유희좌로 앉아 계신 관음보살의 뒤로 둥근 보름달이 떴다. 잔잔한 물결에 보름달빛이 금빛 물결을 탄다.

수월관음벽화에선 소재 구성도 규범처럼 동일하게 나타난다.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바다, 바위산, 수양버들 가지가 꽂힌 정병과 가지 위에 앉은 파랑새, 보름달, 청죽, 연꽃 등이 빠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성과 소재, 모티프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서부터 전통처럼 일관해 온 전형 양식이다. 예술의 흐름에서 전형이 있으면 변형이 발생하고, 때론 파격적인 이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의 관세음보살 및 달마대사벽화도 한국 산사 수월관음벽화의 독특한 이형의 하나로 주목을 끈다. 수월관음도와 달마대사도를 한 화면에 수용한 희귀한 벽화이기 때문이다.

### 수월관음과 달마대사를 한 화면에 표현

운문사 대웅보전의 관세음보살 및 달마대사도는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대형 벽화다. 화면의 크기가 세로 290㎝, 가로 524㎝에 이른다. 화면의 바탕은 황토, 모래 등으로 부드럽게 마감한 후 연한 녹색 계열인 뇌록으로 바탕칠을 해 그 위에 채색 안료를 풀었다. 수월관음벽화의 독특한 이형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전형 형식을 실현하고 있다. 단지 수월관음도와 달마대사도를 한 화면에 수용하고 있어 배치 형식에서 독특할 뿐이다. 같은 크기의 두 벽화가 하나의 화면 속에 병렬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두 벽화는 각자 독립적인 화면을 가진다. 보성 대원사 극락전이나 부산 범어사 대웅전에서는 수월관음벽화와 혜가단비 장면의 달마대사벽화를 법당 내부 좌우 벽면에 따로 조성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화면을 살펴보면 바위산을 경계로 두 화면의 영역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화면의 경계는 대단히 자연스럽다. 처음부터 두 도상을 한 화면에 조성하려 한 목적의식성이 깔려 있다. 세로 290㎝, 가로 260㎝ 크기의 두 도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한 형태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화면은 두 개의 도상으로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독립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앙을 기준으로 화면의 향우측은 관세음보살도, 향좌측은 달마대사도를 그렸다. 한쪽은 대자대비 보살의 세계이고, 다른 쪽은 단박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 수행자의 세계다. 그래서인지 좌우 화면에 흐르는 기운부터 다르다. 관세음보살의 화면은 두루 원만하고 성글며 부드럽다. 반면에 달마대사도의 화면은 거칠고 빽빽하며 쭈뼛쭈뼛하다. 화면의 주인공부터가 관세음보살은 여성성이 강하고, 맞은편 달마대사는 남성성이 강해서 확연히 대비된다. 그것은 대승불교와 선종이 추구하는 수행 가풍 차이의 반영이기도 하다.

### 선재동자, 관음께 법을 구하는 판타지 장면

향우측 관세음보살벽화는 하나의 화면으로 떼어 놓으면 전형적인 수월관음도다. 선재동자가 보타낙가산의 관세음보살을 찾아가 법을 구하는 판타지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관음보살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그 위로 다시 흰색 천을 드리우고 계신 백의수월관음(白衣水月觀音)이다. '백의수월관음'이라는 단어에는 흰옷[白衣], 물[水], 보름달[月], 관음(觀音)의 핵심 구성이 모두 담겨 있다. 백의수월관음벽화는 강진 무위사, 공주 마곡사, 보성 대원사, 부안 내소사, 김천 직지사 등에도 현존한다. 머리 위로 면사포 같은 흰색 천을 드리우거나 흰 옷을 입고 계신 것은 그 자비행의 본성이 청정한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머리 뒤의 둥근 빛은 광배다. 광배는 생명의 빛인 초록색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몸 뒤의 큰 원은 어떤 색도 입히지 않고 바탕색 그대로 투명하게 처리했다. 다름 아닌 보름달이다. 바다와 보름달과 관음보살, 그 셋은 생명의 영원한 여성성으로 상통한다. 그 셋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셋으로 엮은 존명이 '수월관음'이다. 수월관음은 청정한 생명의 바다와도 같은 존재다. 그 바다에서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고, 선재동자는 연꽃 위에 서서 관음보살께 합장배례를 올리며 법을 구하고 있다. 관음보살께선 선재동자에게 법비를 내릴 준비를 이미 마련해 두셨다. 감로의 정병에 수양버들 가지가 물올라 있고, 가지엔 파랑새가 날아들어 지저귄다. 파랑새는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분신이다. 정병과 수양버들과 파랑새는 관음보살의 대자대비의 알레고리다. 늘 푸른 소나무와 청죽에는 중생에 대한 변함없는 자비행과 무한한 생명력을 담았다. 수월관음도는 대단히 환상적인 서사가 담긴 아름다운 벽화다. 진리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진리다.

### 혜가단비도, 선종의 법맥 잇는 극적 장면

향좌측의 달마대사도에는 긴장감이 팽팽하다. 화면의 공간적 무대는 바위로 둘러싸인 동굴이다. 동굴은 바위산 깊숙한 곳에 있다. 바위산의 이름은 숭산이다. 호랑이 같은 맹수도 포효하고, 여우와 사슴도 서식하는 깊은 산중이다. 동굴 안에는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과묵해 보이는, 범상치 않은 한 선사가 앉아 있다. 그 선사가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다.

화면 속 서사는 숭산 소림사 동굴에서 9년간 면벽수행하고 있던 달마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때는 폭설이 쏟아지는 한겨울이다. 그림에서 왼쪽 아래에서 있는 사람이다. 중국 선종의 제2조 혜가(慧可)다. 원래 이름은 신광이다. 화면을 압도하는 장면은 달마대사와 신광(혜가) 선사 사이의 그 유명한 '안심법문'의 서사에서 비롯된다.

법을 구하는 신광에게 달마가 말했다. 만약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면 법을 주겠다. 신광은 망설임 없이 단칼에 자신의 왼팔을 잘라 보였다. 믿음으로 보건대 능히 법을 구할 만한 그릇이다. 달마는 '법을 구할 만하다'는 뜻을 담아 신광에게 '혜가'라는 법명을 내려 주었다. 혜가가 팔을 잘라 믿음을 보이는 이 급진적인 장면의 그림을 '혜가단비도'라 부른다.

혜가단비도는 중국 선종의 법맥이 이심전심으로 이어지는 극적 장면을 담고 있다. 중국 선종은 형식 논리로 접근하면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종은 오직 마음의 본성에 주목한다. 단칼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 망상을 베어 버려야 한다. 그때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고 확철대오한다. 선으로 마음의 본성을 직관하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깨달음에 이르는 혁신적인 길, 선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선과 화두 수행을 통해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직지인심의 길로 이끈 것이다.

화면에는 다른 인물도 보인다. 노란 꽃이 만발한 바위 아래서 수행하고 있는 고승, 바로 중국 선종의 제6조 혜능이다. 중국 선종은 초조 달마부터 제2조 혜가, 제3조 승찬 등을 거쳐 제6조 혜능으로 이어지는 사자상승(師資相承)으로 법통을 이어 나갔다. 운문사의 달마대사벽화는 그 선종의 법맥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불교미술사적 가치를 지닌다.

벽화는 하나의 화면에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보여 준다. 수월관음벽화에서 관음보살-선재동자 장면을 통해 대승보살의 자비행과 53위의 보살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보여 준다면, 달마대사벽화에서는 달마대사-혜가 선사의 장면을 통해 단박에 마음의 본성을 직관해 확철대오하는 직지인심의 선 수행의 길을 보여 준다. 어느 길이든 하나로 이어진다. 만법은 청정한 마음으로 귀일한다. 마음 밖에 선 부처를 찾을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이 두 벽화를 한 화면에 담은 본질일지도 모른다.



노재학 작가